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57호 【루게 제25035호】주제104(2015)년 9월 14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을 앞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건설장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당의 평도에 무한히 충직한 선군청년전위들의 열화와 같은 애국충정과 영웅적투쟁, 창조적지혜와 불같은 열정에 떠받들려워 백두산대국의 자랑스러운 청춘기념비, 청년강국의 상징으로 건설되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가 완공의 날을 눈앞에 두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을 앞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봉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용원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 참가한 돌격대의 지휘성원들과 해당부분의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4월 이곳 건설장을 찾으시어 발전소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당창건 일흔둘까지 공사를 완공할데 대한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였으며 자체보장대책도 세워주시였을뿐만 아니라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파견해주시는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뜻깊은 그날 세상에 돌도 없는 청년강국의 주인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우리 청년들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워주시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믿음과 기대를 심장깊이 새겨안은 청년돌격대원들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달려온 인민군인들과의 긴밀한 군민협동작전밑에 긴장한 전투를 벌려 지난 10년간 진행해온것보다 더 방대한 건설과제를 불과 너달 남짓한 기간에 해체킴으로써 수력발전소건설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돌격대지휘성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1호발전소 인제공사를 지난 8월 28일 청년절을 맞으며 완공하였는데 백두산에서 새로운 기적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용라고, 지난 4월 자신께서 발전소건설장을 다녀간 때로부터 120여일간 낮과 밤이 따로없는 백열전을 벌림으로써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청년화를 창조하였다고, 우리 당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조선청년들만이 창조할수 있는 신화이라고, 우리 청년들은 모두가 영웅들이라고 하시면서 발전소의 이름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로 명명해

주시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사적표식비를 보시고 건설중에 있는 교양실을 돌아보시며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서 발휘한 청년들의 위훈은 우리 당력사에 긍지높이 새겨놓고 길이 전해가야 할 귀중한 재보이라고 하시면서 교양실의 이름을 백두산영웅청년위훈전시관으로 명명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1호발전소와 2호발전소 인제, 2호발전소 물길굴과 발전기실, 조종실, 옥외변전소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높이 솟아오른 1호발전소 인제를 여러곳에서

보아주시고 인제우를 건너시기도 하시면서 멋있다고, 정말 웅장하다고, 미남 자처럼 잘 생겼다고, 올려다보면 하늘 끝에 닿은 우리 청년들의 기상을 보는 것만 같고 멀리서 보면 당중앙을 응위하여 성세, 방패를 이룬 청년대군의 모습을 보는것만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이 쌓아올린 인제이기에 그 높이를 결코 측정단위로 잴수 없다고, 백두산영웅청년1호발전소 인제의 높이는 우리 청년들의 애국심의 높이, 청년강국의 높이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발전소인제우에 올라서면 그가 누구이든 시상이 절로 떠오를것이라고 하시면서 백두의 칼바람에 뜻을 달고 우리 당이 정한 조선혁명의 침로

따라 폭풍쳐 내달리는 백두청춘들의 영웅적기상과 위훈이여라고 하시며 한편의 시를 읊으시듯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제과 우안 산중턱에 《청년증시 사상 만세!》라는 구호와 《청년강국》, 《백두청춘》이라는 표어를 세웠는데 건설장소의 곳곳마다 나뉘어 있는 힘있는 구호들과 표어들만 보아도 당을 받들고 지지하는 우리 청년들의 불타는 총정의 마음을 읽을수 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호발전소 인제와 물길굴도 무심히 볼수 없다고 하시면서 후한속에서 자연과의 전쟁을 벌린 청년들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여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호발전소 발전기실과 조종실, 옥외변전소를 잘 건설했다고 하시면서 설비조립이 끝난데 맞게 하루빨리 시운전을 진행하며 1호발전소와 2호발전소를 정상운영할수 있도록 자동화, 정보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통합조종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공장, 기업소 로동계급들의 수고가 많았다고 하시면서 대상설비생산보장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젖줄기인양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로부터 삼지연군까지 뻗은 송전선과 송전소를 만족하게 보신 다음 군인건설자들이 침수지역 인민들을 위해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을 돌아보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을 앞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건설장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산골지역의 특성에 맞게 살림집들을 깨끗하면서도 아담하게, 안팎으로 손색이 없이 잘 건설했다고 하시면서 모든 살림집들이 가구비품들을 갖추어 놓은것은 물론 빨래감과 비자루, 눈가래, 삼태기까지 마련하여놓았다고, 터밭에 가을남새까지 심어 놓았는데 인민들이 정말 좋아하겠다고 기뻐하시였다.

군인건설자들이 제 집을 꾸리는 심정으로 살림집들을 건설했는데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사명으로 여기고있는 인민군대의 일본새가 다르다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가 자리잡고있는 지구에 별세상, 별천지,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선경, 새 풍경이 생겨났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땅에 솟아오른 기념비적창조물들마다에는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것이 수없이 많다고 하시면서 이것만 놓고

보아도 우리 당의 70년 력사속에는 청년중시사상의 력사, 청년들을 시대의 영웅, 창조주 거인으로 키운 력사가 응축되어있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돌을 맞으며 백두산영웅청년

발전소가 일떠선것은 10월의 대축전을 뜻깊게 장식하는데만 그 의의가 있는것이 아니라 창당 첫시기부터 장기성을 띠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청년들을 당의 후비대, 척후대, 익속부대로 키운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령도가

얼마나 정당한가를 보여주는 힘있는 과시로 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날 이곳으로 오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얼마나 중시하시였으면 그처럼 불편하신 몸으로

청년들은 당의 결심을 관철하는데서 선봉대의 역할을 다해가고있다는것을 다시금 웅변으로 증명하였다고, 우리 청년들의 힘이 정말 강하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앞에 난관과 시련이 막아나설 때마다

자신의 마음속에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에 스스로 찾아와 인생의 첫 출발을 떼고 백두대지에 애국의 삼을 박고 애국의 피와 땀을 바치며 청년대학 졸업증을 받은 청년들이 기둥으로 서있었다고, 이런 청년대군이 있기에 우리 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심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이 얼마나 위대하고 청년강국의 앞길이 얼마나 휘황찬란한가를 보려면 누구나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에 와보면 될것이라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공으로 키워 그들이 강성국가의 문패를 남면저 달게 하려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전략적선이고 방침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청년들이 조선청년들의 자랑스런 전통을 이어 이 땅위에 대대손손 물려줄 조국의 만년제부를 더 많이 일떠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3 면으로 계속



의국방문을 마치시는 길로 천사만사가 기다리는 국사를 뒤로 미루시고 발전소건설장부터 먼저 찾아오시였겠는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였다고, 장군님께서 이처럼 어려운 발전소건설을 인민군대나 내각에 맡겨줄수도 있었으나 청년들에게 통채로 맡겨주시것은 우리 청년들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충직한 나라의 역군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하시면서 우리 청년들은 언제나 자기들을 청년강국의 주인들로 키워주시는 장군님의 업적을 영원히 잊지 말고대물 이어 빛내여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완공을 앞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건설장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 2 번째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까지는 얼마 남지 않은것만큼 공사를 완전무결하게 결속하고 이곳에서 승리자의 선언인 군민청년대합창을 하늘땅이 들썩하게 진행하자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꼭 보여주시겠다고, 그날 1호발전소 언제를 배경으로 기념사진도 찍자는 온정깊은 약속을 다시금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기동예술선동대의 공연 <백두청춘들이 부르는 신념의 노래>를 보시고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적품모를 감명깊게 보여준 훌륭한 공연이라고 높이 평가하시고 선동대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전체 건설자들은 멀고 험한 건설장에 또다시 찾아오시여 한없는 믿음과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감사의 정에 걱정을 금치 못하면서 당중앙이 제시한 영예로운 과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청년강국의 주인으로서의 위용을 온 세상에 더 높이 펼쳐갈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미제살인마들이 저지른 죄악을 피로써, 총대로 끝까지 결산하자

##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의 거점 신천박물관을 찾아서 (2)

### 이 땅에 새겨진 피의 흔적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있다. 그가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뼈에 새겨 넣었다.

미제는 인간의 말을 쓴 야수, 우리 인민의 백년속적이라는 것을.

신천박물관은 백사의 이 전리를 교과서나 영화가 아닌 눈앞의 현실로, 피비린 참변의 산 화폭으로 단사람의 심장에 새겨 놓아 주고 있다.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미제가 얼마나 야수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고문하고 학살하였는지 하는것은 신천땅에서 저지른 학살만행은 보아도 잘 알수 있습니다.》

신천박물관 전시실-3에서는 지금으로부터 14년전 11월 신천군 범바위산 옛 전호에서 59구의 애국자들과 인민들의 유골이 발굴된데 대한 자료가 전시되어있다.

전시실-4에 들어선 강사의 해설이었다. 전시실에는 방공호에서 벌어진 끔찍한 참변을 보여주는 생동한 자료들이 수없이 전시되어있었다.

미제야수들은 군내부서창고에 가둔 애국자들을 학살할 방법을 모으는 자리에서 그들을 다른데 끌어내가지 말고 내부서 방공호에 처넣고 비밀리에 죽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후에 백경이들이 도주하면 학살했다고 의심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전시실 520여명의 주민들을 방공호에 몰아넣고 입구를 옮겨가거나 밀폐한 다음 이미 장치해놓았던 폭발물도화선에 불을 달아 그들모두를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전시실을 돌아보던 참관자들은 어느 한 곳에 이르러 모두가 소스라치듯 놀랐다. 폭발로 무너져내린 어둡침침한 방공호입구며 바위들위에 처져 팔다리와 몸, 머리가 으깨어진 애국자들의 피에 젖은 처참한 모습...

그날의 참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팽정앞에서 치를 떠는 참관자들에게 강사는 미제살인귀들과 계급적원수들은 방공호뿐 아니라 군내부서주변 전호에서도 비밀리에 수많은 애국적인민들을 학살하였다고 하면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여러차례에 걸쳐 현지에서 수백구의 유해가 발굴된데 대하여 말하였다.

전시실에서는 차마 눈뜨고 볼수 없고 입에 담을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 대형화면으로 형상되어 있었다.

그것은 전쟁전 우리 공화국의 인민적시책에 의해 근로자들의 문화휴식지로, 휴양지로 이용하던 온천휴양소에서 미국놈들이 어떻게 우리 녀성들의 정조를 유린하고 학살하였는가를 생생한 화폭으로 보여주는 반경화였다.

깊은 밤 휴양소 이르는 곳마다에서 녀성들을 끌고, 문둥하고는 그들을 칼로 찢어죽이고 목놓죽이고 번갯불에 태워죽이는 인간장학 미제살인귀놈들, 찢겨진 옷도 찾지 못하며, 너무도 분하고 절통하여 눈도 감지 못한채 쓰러진 수많은 녀성들...

전시실에서는 그들이 남긴 머리채며 비녀를 비롯한 유물들이 그들의 참상을 단천하에 고발하며 오늘날도 모순고대로 전시되어있었다.

산천초목도 치를 떨 극악한 살인만행앞에서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는 참관자들에게 강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미제야수들에 의해 근로자들의 행복넘친 웃음소리, 노래소리만 울려지던 온천휴양소에서 수많은 녀성들이 자기의 꽃다운 청춘과 목숨을 잃었습니다.》

온천휴양소뿐이 아니었다. 미제는 온천읍읍상에서도 사나운 군정을 풀어놓아 사람들을 물어뜯고 하고 나중에는 그들의 머리에 불을 지르므로서 녀성들과 아이들을 비롯한 1200여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하였다.

원수들은 석당교에서부터 무려 2000여명의 인민들을 총으로 쏘아죽이고 몸을 옮겨가다가 대하여 격분에 넘쳐 말하였다. 유해들은 대체로 머리뼈가 부서졌거나 팔, 다리뼈가 부러졌으며 어떤 인민의 머리뼈에는 대못이 그대로 박혀 있었다.

더구나 그 유해들의 대부분이 녀성들과 어린이들의 유해라는 강사의 해설은 참관자들로 하여금 미제살인귀놈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분노를 금치 못하게 하였다.

우리는 신천땅에서 감행된 우리 녀성들에 대한 미제의 극악한 살육만행을 전시실-5에서 더욱더 생생히 보았다.

전시실에서는 차마 눈뜨고 볼수 없고 입에 담을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 대형화면으로 형상되어 있었다.

실로 신천땅은 이르는 곳마다가 학살터였고 죽음의 생지옥이었다. 전시실-6을 비롯하여 신천박물관의 여러 전시실들은 당시 북부면과 가산면을 비롯한 신천군의 곳곳마다에서 감행한 반인륜적만행을 보여주는 반경화화화 함께 보여 타 시꺼민 숭덩이처럼 되어버린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의 모습이 그대로 형상되어있었다.

《영웅적인민군대의 제진격에 의해서 신천땅에서 쫓겨나게 된 미제침략군놈들은 1950

으로 해설하였다. 복수를 부르는 희생자들의 절규가 아직도 사람들의 가슴을 허비는 그날의 참혹한 현상은 이렇게 채되고있다.

미제가 사람의 가족을 뒤집어 쓴 야수라는것을 자기 눈과 귀로 느끼고싶다면 여기 신천으로 오라.

미제살인귀놈들과는 절대로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없다는것을 전리로 믿고싶다면 여기 신천박물관을 찾아오라.

참관자들은 신천의 이 체험을 심장에 아로새기며 다음전시실로 참관의 길을 이어갔다.

글 본사기자 리 남 호 사진 본사기자 신 충 호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있다. 그가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뼈에 새겨 넣었다.

미제는 인간의 말을 쓴 야수, 우리 인민의 백년속적이라는 것을.

신천박물관은 백사의 이 전리를 교과서나 영화가 아닌 눈앞의 현실로, 피비린 참변의 산 화폭으로 단사람의 심장에 새겨 놓아 주고 있다.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미제침략자들이야말로 정신착란증에 걸린 미친놈들이며 두발 가진 승냥이들입니다.》

얼마전 신천박물관을 찾았다는 백색어린이보아에서 오래도록 곁을 멈추었다. 귀기울

이런 금시라도 엄마를 애라게 부르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살을 에이머 들러오는듯싶었다.

사람의 말을 쓴 승냥이 미제에 의해 피어날지도 못한데 땅속에 묻혀 있다. 귀기울

이런 금시라도 엄마를 애라게 부르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살을 에이머 들러오는듯싶었다.

사람의 말을 쓴 승냥이 미제에 의해 피어날지도 못한데 땅속에 묻혀 있다. 귀기울

이런 금시라도 엄마를 애라게 부르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살을 에이머 들러오는듯싶었다.

사람의 말을 쓴 승냥이 미제에 의해 피어날지도 못한데 땅속에 묻혀 있다. 귀기울

이런 금시라도 엄마를 애라게 부르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살을 에이머 들러오는듯싶었다.

사람의 말을 쓴 승냥이 미제에 의해 피어날지도 못한데 땅속에 묻혀 있다. 귀기울

이런 금시라도 엄마를 애라게 부르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살을 에이머 들러오는듯싶었다.

사람의 말을 쓴 승냥이 미제에 의해 피어날지도 못한데 땅속에 묻혀 있다. 귀기울

이런 금시라도 엄마를 애라게 부르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살을 에이머 들러오는듯싶었다.

사람의 말을 쓴 승냥이 미제에 의해 피어날지도 못한데 땅속에 묻혀 있다. 귀기울

이런 금시라도 엄마를 애라게 부르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살을 에이머 들러오는듯싶었다.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있다. 그가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뼈에 새겨 넣었다.

미제는 인간의 말을 쓴 야수, 우리 인민의 백년속적이라는 것을.

신천박물관은 백사의 이 전리를 교과서나 영화가 아닌 눈앞의 현실로, 피비린 참변의 산 화폭으로 단사람의 심장에 새겨 놓아 주고 있다.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미제가 얼마나 야수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고문하고 학살하였는지 하는것은 신천땅에서 저지른 학살만행은 보아도 잘 알수 있습니다.》

신천박물관 전시실-3에서는 지금으로부터 14년전 11월 신천군 범바위산 옛 전호에서 59구의 애국자들과 인민들의 유골이 발굴된데 대한 자료가 전시되어있다.

전시실-4에 들어선 강사의 해설이었다. 전시실에는 방공호에서 벌어진 끔찍한 참변을 보여주는 생동한 자료들이 수없이 전시되어있었다.

미제야수들은 군내부서창고에 가둔 애국자들을 학살할 방법을 모으는 자리에서 그들을 다른데 끌어내가지 말고 내부서 방공호에 처넣고 비밀리에 죽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후에 백경이들이 도주하면 학살했다고 의심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전시실 520여명의 주민들을 방공호에 몰아넣고 입구를 옮겨가거나 밀폐한 다음 이미 장치해놓았던 폭발물도화선에 불을 달아 그들모두를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전시실을 돌아보던 참관자들은 어느 한 곳에 이르러 모두가 소스라치듯 놀랐다. 폭발로 무너져내린 어둡침침한 방공호입구며 바위들위에 처져 팔다리와 몸, 머리가 으깨어진 애국자들의 피에 젖은 처참한 모습...

그날의 참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팽정앞에서 치를 떠는 참관자들에게 강사는 미제살인귀들과 계급적원수들은 방공호뿐 아니라 군내부서주변 전호에서도 비밀리에 수많은 애국적인민들을 학살하였다고 하면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여러차례에 걸쳐 현지에서 수백구의 유해가 발굴된데 대하여 말하였다.

전시실에서는 차마 눈뜨고 볼수 없고 입에 담을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 대형화면으로 형상되어 있었다.

그것은 전쟁전 우리 공화국의 인민적시책에 의해 근로자들의 문화휴식지로, 휴양지로 이용하던 온천휴양소에서 미국놈들이 어떻게 우리 녀성들의 정조를 유린하고 학살하였는가를 생생한 화폭으로 보여주는 반경화였다.

깊은 밤 휴양소 이르는 곳마다에서 녀성들을 끌고, 문둥하고는 그들을 칼로 찢어죽이고 목놓죽이고 번갯불에 태워죽이는 인간장학 미제살인귀놈들, 찢겨진 옷도 찾지 못하며, 너무도 분하고 절통하여 눈도 감지 못한채 쓰러진 수많은 녀성들...

전시실에서는 그들이 남긴 머리채며 비녀를 비롯한 유물들이 그들의 참상을 단천하에 고발하며 오늘날도 모순고대로 전시되어있었다.

산천초목도 치를 떨 극악한 살인만행앞에서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는 참관자들에게 강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미제야수들에 의해 근로자들의 행복넘친 웃음소리, 노래소리만 울려지던 온천휴양소에서 수많은 녀성들이 자기의 꽃다운 청춘과 목숨을 잃었습니다.》

온천휴양소뿐이 아니었다. 미제는 온천읍읍상에서도 사나운 군정을 풀어놓아 사람들을 물어뜯고 하고 나중에는 그들의 머리에 불을 지르므로서 녀성들과 아이들을 비롯한 1200여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하였다.

원수들은 석당교에서부터 무려 2000여명의 인민들을 총으로 쏘아죽이고 몸을 옮겨가다가 대하여 격분에 넘쳐 말하였다. 유해들은 대체로 머리뼈가 부서졌거나 팔, 다리뼈가 부러졌으며 어떤 인민의 머리뼈에는 대못이 그대로 박혀 있었다.

더구나 그 유해들의 대부분이 녀성들과 어린이들의 유해라는 강사의 해설은 참관자들로 하여금 미제살인귀놈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분노를 금치 못하게 하였다.

우리는 신천땅에서 감행된 우리 녀성들에 대한 미제의 극악한 살육만행을 전시실-5에서 더욱더 생생히 보았다.

전시실에서는 차마 눈뜨고 볼수 없고 입에 담을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 대형화면으로 형상되어 있었다.

실로 신천땅은 이르는 곳마다가 학살터였고 죽음의 생지옥이었다. 전시실-6을 비롯하여 신천박물관의 여러 전시실들은 당시 북부면과 가산면을 비롯한 신천군의 곳곳마다에서 감행한 반인륜적만행을 보여주는 반경화화화 함께 보여 타 시꺼민 숭덩이처럼 되어버린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의 모습이 그대로 형상되어있었다.

《영웅적인민군대의 제진격에 의해서 신천땅에서 쫓겨나게 된 미제침략군놈들은 1950

으로 해설하였다. 복수를 부르는 희생자들의 절규가 아직도 사람들의 가슴을 허비는 그날의 참혹한 현상은 이렇게 채되고있다.

미제가 사람의 가족을 뒤집어 쓴 야수라는것을 자기 눈과 귀로 느끼고싶다면 여기 신천으로 오라.

미제살인귀놈들과는 절대로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없다는것을 전리로 믿고싶다면 여기 신천박물관을 찾아오라.

참관자들은 신천의 이 체험을 심장에 아로새기며 다음전시실로 참관의 길을 이어갔다.

글 본사기자 리 남 호 사진 본사기자 신 충 호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있다. 그가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뼈에 새겨 넣었다.

미제는 인간의 말을 쓴 야수, 우리 인민의 백년속적이라는 것을.

신천박물관은 백사의 이 전리를 교과서나 영화가 아닌 눈앞의 현실로, 피비린 참변의 산 화폭으로 단사람의 심장에 새겨 놓아 주고 있다.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미제침략자들이야말로 정신착란증에 걸린 미친놈들이며 두발 가진 승냥이들입니다.》

얼마전 신천박물관을 찾았다는 백색어린이보아에서 오래도록 곁을 멈추었다. 귀기울

이런 금시라도 엄마를 애라게 부르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살을 에이머 들러오는듯싶었다.

사람의 말을 쓴 승냥이 미제에 의해 피어날지도 못한데 땅속에 묻혀 있다. 귀기울

이런 금시라도 엄마를 애라게 부르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살을 에이머 들러오는듯싶었다.

사람의 말을 쓴 승냥이 미제에 의해 피어날지도 못한데 땅속에 묻혀 있다. 귀기울

이런 금시라도 엄마를 애라게 부르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살을 에이머 들러오는듯싶었다.

사람의 말을 쓴 승냥이 미제에 의해 피어날지도 못한데 땅속에 묻혀 있다. 귀기울

이런 금시라도 엄마를 애라게 부르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살을 에이머 들러오는듯싶었다.

사람의 말을 쓴 승냥이 미제에 의해 피어날지도 못한데 땅속에 묻혀 있다. 귀기울

이런 금시라도 엄마를 애라게 부르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살을 에이머 들러오는듯싶었다.

사람의 말을 쓴 승냥이 미제에 의해 피어날지도 못한데 땅속에 묻혀 있다. 귀기울

이런 금시라도 엄마를 애라게 부르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살을 에이머 들러오는듯싶었다.

사람의 말을 쓴 승냥이 미제에 의해 피어날지도 못한데 땅속에 묻혀 있다. 귀기울

이런 금시라도 엄마를 애라게 부르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살을 에이머 들러오는듯싶었다.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있다. 그가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뼈에 새겨 넣었다.

미제는 인간의 말을 쓴 야수, 우리 인민의 백년속적이라는 것을.

신천박물관은 백사의 이 전리를 교과서나 영화가 아닌 눈앞의 현실로, 피비린 참변의 산 화폭으로 단사람의 심장에 새겨 놓아 주고 있다.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미제가 얼마나 야수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고문하고 학살하였는지 하는것은 신천땅에서 저지른 학살만행은 보아도 잘 알수 있습니다.》

신천박물관 전시실-3에서는 지금으로부터 14년전 11월 신천군 범바위산 옛 전호에서 59구의 애국자들과 인민들의 유골이 발굴된데 대한 자료가 전시되어있다.

전시실-4에 들어선 강사의 해설이었다. 전시실에는 방공호에서 벌어진 끔찍한 참변을 보여주는 생동한 자료들이 수없이 전시되어있었다.

미제야수들은 군내부서창고에 가둔 애국자들을 학살할 방법을 모으는 자리에서 그들을 다른데 끌어내가지 말고 내부서 방공호에 처넣고 비밀리에 죽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후에 백경이들이 도주하면 학살했다고 의심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전시실 520여명의 주민들을 방공호에 몰아넣고 입구를 옮겨가거나 밀폐한 다음 이미 장치해놓았던 폭발물도화선에 불을 달아 그들모두를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전시실을 돌아보던 참관자들은 어느 한 곳에 이르러 모두가 소스라치듯 놀랐다. 폭발로 무너져내린 어둡침침한 방공호입구며 바위들위에 처져 팔다리와 몸, 머리가 으깨어진 애국자들의 피에 젖은 처참한 모습...

그날의 참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팽정앞에서 치를 떠는 참관자들에게 강사는 미제살인귀들과 계급적원수들은 방공호뿐 아니라 군내부서주변 전호에서도 비밀리에 수많은 애국적인민들을 학살하였다고 하면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여러차례에 걸쳐 현지에서 수백구의 유해가 발굴된데 대하여 말하였다.

전시실에서는 차마 눈뜨고 볼수 없고 입에 담을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 대형화면으로 형상되어 있었다.

그것은 전쟁전 우리 공화국의 인민적시책에 의해 근로자들의 문화휴식지로, 휴양지로 이용하던 온천휴양소에서 미국놈들이 어떻게 우리 녀성들의 정조를 유린하고 학살하였는가를 생생한 화폭으로 보여주는 반경화였다.

깊은 밤 휴양소 이르는 곳마다에서 녀성들을 끌고, 문둥하고는 그들을 칼로 찢어죽이고 목놓죽이고 번갯불에 태워죽이는 인간장학 미제살인귀놈들, 찢겨진 옷도 찾지 못하며, 너무도 분하고 절통하여 눈도 감지 못한채 쓰러진 수많은 녀성들...

전시실에서는 그들이 남긴 머리채며 비녀를 비롯한 유물들이 그들의 참상을 단천하에 고발하며 오늘날도 모순고대로 전시되어있었다.

산천초목도 치를 떨 극악한 살인만행앞에서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는 참관자들에게 강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미제야수들에 의해 근로자들의 행복넘친 웃음소리, 노래소리만 울려지던 온천휴양소에서 수많은 녀성들이 자기의 꽃다운 청춘과 목숨을 잃었습니다.》

온천휴양소뿐이 아니었다. 미제는 온천읍읍상에서도 사나운 군정을 풀어놓아 사람들을 물어뜯고 하고 나중에는 그들의 머리에 불을 지르므로서 녀성들과 아이들을 비롯한 1200여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하였다.

원수들은 석당교에서부터 무려 2000여명의 인민들을 총으로 쏘아죽이고 몸을 옮겨가다가 대하여 격분에 넘쳐 말하였다. 유해들은 대체로 머리뼈가 부서졌거나 팔, 다리뼈가 부러졌으며 어떤 인민의 머리뼈에는 대못이 그대로 박혀 있었다.

더구나 그 유해들의 대부분이 녀성들과 어린이들의 유해라는 강사의 해설은 참관자들로 하여금 미제살인귀놈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분노를 금치 못하게 하였다.

우리는 신천땅에서 감행된 우리 녀성들에 대한 미제의 극악한 살육만행을 전시실-5에서 더욱더 생생히 보았다.

전시실에서는 차마 눈뜨고 볼수 없고 입에 담을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 대형화면으로 형상되어 있었다.

실로 신천땅은 이르는 곳마다가 학살터였고 죽음의 생지옥이었다. 전시실-6을 비롯하여 신천박물관의 여러 전시실들은 당시 북부면과 가산면을 비롯한 신천군의 곳곳마다에서 감행한 반인륜적만행을 보여주는 반경화화화 함께 보여 타 시꺼민 숭덩이처럼 되어버린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의 모습이 그대로 형상되어있었다.

《영웅적인민군대의 제진격에 의해서 신천땅에서 쫓겨나게 된 미제침략군놈들은 1950

으로 해설하였다. 복수를 부르는 희생자들의 절규가 아직도 사람들의 가슴을 허비는 그날의 참혹한 현상은 이렇게 채되고있다.

미제가 사람의 가족을 뒤집어 쓴 야수라는것을 자기 눈과 귀로 느끼고싶다면 여기 신천으로 오라.

미제살인귀놈들과는 절대로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없다는것을 전리로 믿고싶다면 여기 신천박물관을 찾아오라.

참관자들은 신천의 이 체험을 심장에 아로새기며 다음전시실로 참관의 길을 이어갔다.

글 본사기자 리 남 호 사진 본사기자 신 충 호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있다. 그가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뼈에 새겨 넣었다.

미제는 인간의 말을 쓴 야수, 우리 인민의 백년속적이라는 것을.

신천박물관은 백사의 이 전리를 교과서나 영화가 아닌 눈앞의 현실로, 피비린 참변의 산 화폭으로 단사람의 심장에 새겨 놓아 주고 있다.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미제침략자들이야말로 정신착란증에 걸린 미친놈들이며 두발 가진 승냥이들입니다.》

얼마전 신천박물관을 찾았다는 백색어린이보아에서 오래도록 곁을 멈추었다. 귀기울

이런 금시라도 엄마를 애라게 부르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살을 에이머 들러오는듯싶었다.

사람의 말을 쓴 승냥이 미제에 의해 피어날지도 못한데 땅속에 묻혀 있다. 귀기울

이런 금시라도 엄마를 애라게 부르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살을 에이머 들러오는듯싶었다.

사람의 말을 쓴 승냥이 미제에 의해 피어날지도 못한데 땅속에 묻혀 있다. 귀기울

이런 금시라도 엄마를 애라게 부르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살을 에이머 들러오는듯싶었다.

사람의 말을 쓴 승냥이 미제에 의해 피어날지도 못한데 땅속에 묻혀 있다. 귀기울

이런 금시라도 엄마를 애라게 부르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살을 에이머 들러오는듯싶었다.

사람의 말을 쓴 승냥이 미제에 의해 피어날지도 못한데 땅속에 묻혀 있다. 귀기울

이런 금시라도 엄마를 애라게 부르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살을 에이머 들러오는듯싶었다.

사람의 말을 쓴 승냥이 미제에 의해 피어날지도 못한데 땅속에 묻혀 있다. 귀기울

이런 금시라도 엄마를 애라게 부르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살을 에이머 들러오는듯싶었다.

사람의 말을 쓴 승냥이 미제에 의해 피어날지도 못한데 땅속에 묻혀 있다. 귀기울

이런 금시라도 엄마를 애라게 부르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살을 에이머 들러오는듯싶었다.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있다. 그가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뼈에 새겨 넣었다.

미제는 인간의 말을 쓴 야수, 우리 인민의 백년속적이라는 것을.

신천박물관은 백사의 이 전리를 교과서나 영화가 아닌 눈앞의 현실로, 피비린 참변의 산 화폭으로 단사람의 심장에 새겨 놓아 주고 있다.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미제가 얼마나 야수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고문하고 학살하였는지 하는것은 신천땅에서 저지른 학살만행은 보아도 잘 알수 있습니다.》

신천박물관 전시실-3에서는 지금으로부터 14년전 11월 신천군 범바위산 옛 전호에서 59구의 애국자들과 인민들의 유골이 발굴된데 대한 자료가 전시되어있다.

전시실-4에 들어선 강사의 해설이었다. 전시실에는 방공호에서 벌어진 끔찍한 참변을 보여주는 생동한 자료들이 수없이 전시되어있었다.

미제야수들은 군내부서창고에 가둔 애국자들을 학살할 방법을 모으는 자리에서 그들을 다른데 끌어내가지 말고 내부서 방공호에 처넣고 비밀리에 죽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후에 백경이들이 도주하면 학살했다고 의심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전시실 520여명의 주민들을 방공호에 몰아넣고 입구를 옮겨가거나 밀폐한 다음 이미 장치해놓았던 폭발물도화선에 불을 달아 그들모두를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전시실을 돌아보던 참관자들은 어느 한 곳에 이르러 모두가 소스라치듯 놀랐다. 폭발로 무너져내린 어둡침침한 방공호입구며 바위들위에 처져 팔다리와 몸, 머리가 으깨어진 애국자들의 피에 젖은 처참한 모습...

그날의 참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팽정앞에서 치를 떠는 참관자들에게 강사는 미제살인귀들과 계급적원수들은 방공호뿐 아니라 군내부서주변 전호에서도 비밀리에 수많은 애국적인민들을 학살하였다고 하면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여러차례에 걸쳐 현지에서 수백구의 유해가 발굴된데 대하여 말하였다.

전시실에서는 차마 눈뜨고 볼수 없고 입에 담을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 대형화면으로 형상되어 있었다.

그것은 전쟁전 우리 공화국의 인민적시책에 의해 근로자들의 문화휴식지로, 휴양지로 이용하던 온천휴양소에서 미국놈들이 어떻게 우리 녀성들의 정조를 유린하고 학살하였는가를 생생한 화폭으로 보여주는 반경화였다.

깊은 밤 휴양소 이르는 곳마다에서 녀성들을 끌고, 문둥하고는 그들을 칼로 찢어죽이고 목놓죽이고 번갯불에 태워죽이는 인간장학 미제살인귀놈들, 찢겨진 옷도 찾지 못하며, 너무도 분하고 절통하여 눈도 감지 못한채 쓰러진 수많은 녀성들...

전시실에서는 그들이 남긴 머리채며 비녀를 비롯한 유물들이 그들의 참상을 단천하에 고발하며 오늘날도 모순고대로 전시되어있었다.

산천초목도 치를 떨 극악한 살인만행앞에서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는 참관자들에게 강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미제야수들에 의해 근로자들의 행복넘친 웃음소리, 노래소리만 울려지던 온천휴양소에서 수많은 녀성들이 자기의 꽃다운 청춘과 목숨을 잃었습니다.》

온천휴양소뿐이 아니었다. 미제는 온천읍읍상에서도 사나운 군정을 풀어놓아 사람들을 물어뜯고 하고 나중에는 그들의 머리에 불을 지르므로서 녀성들과 아이들을 비롯한 1200여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하였다.

원수들은 석당교에서부터 무려 2000여명의 인민들을 총으로 쏘아죽이고 몸을 옮겨가다가 대하여 격분에 넘쳐 말하였다. 유해들은 대체로 머리뼈가 부서졌거나 팔, 다리뼈가 부러졌으며 어떤 인민의 머리뼈에는 대못이 그대로 박혀 있었다.

더구나 그 유해들의 대부분이 녀성들과 어린이들의 유해라는 강사의 해설은 참관자들로 하여금 미제살인귀놈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분노를 금치 못하게 하였다.

우리는 신천땅에서 감행된 우리 녀성들에 대한 미제의 극악한 살육만행을 전시실-5에서 더욱더 생생히 보았다.



